

탐방 경북도청불자회



◇ 지난 해 7월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센터 자원봉사사에 참여해 회원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성보·사찰환경 '지킴이'

도청 첫 불자회...회원 4백명 무료급식·결식아동 후원

3백만 도민의 공복(公僕)임을 지체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는 경상북도에 불자들의 모임이 생긴 것은 97년 1월. 전국 9개 도청 중 최초의 불자회가 되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대로 경북도청불자회(회장 오장홍)는 개별신앙을 넘어 좀더 조직적이고 폭넓은 신생활을 하기 위해 발족했다. 현재 4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북도청불자회는 경북 각지에 산재한 성보문화재를 보전하고 사찰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보 52점 보물 250점, 사적 92점 등 전국 최대의 문화재 보고(寶庫). 해인골프장과 경부고속도로 경주노선으로 흥역을 치른 일. 세계최초의 문화엑스포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일 모두가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성을 짐작케 한다. 경북도청불자회는 문화재 지

킴이로서 뿐만 아니라 목민관이자 호법신장으로서 위민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결식아동과 1구와 결연맞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무료급식센터에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다. 또 년1~2회 하루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4월에는 경북도의회 정각회와 합동법회를 여는 등 도청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올 초에는 은해사에서 7개 정부부처 합동법회를 개최해 전국 규모의 공무원불자회 모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기도 했다. 다른 도청불자회 창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경북도청불자회는 앞으로 도내 중소 시군에도 불자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다. 얼마전 도의회 총무국장에서 영양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 오장홍회장은 "경북이 우리나라 불교의 발상지이듯 경북도청불자회가 전국 공무원불자회 태동의 중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정당 초월 불교권의 옹호 한마음”

새 회장 추대이후 정각회

회장선출 세척마련...회원 화합 과제

제15대 후반기 국회 정각회장 자리를 놓고 불자의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비껴져 왔던 정각회 알력이 5월10일 서석제 의원이 재추대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를 계기로 교계에서는 정각회가 소속정당의식보다는 초당적 불자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신생활을 활성화하고 불교계 권익옹호 및 증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으나 의원들간 화합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그동안 집권여당에서 회장직을 맡아왔던 관례에서 탈피해 회칙에 회장선출에 대한 세척마련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교계는 국회 정각회가 당파를 초월해 불교권의 옹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97년 정각회 신년법회 장면.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대상

불교위원회가 5월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조계종 한마음선원이 대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상금 1백만원). 장엄등상은 조계사와 천태종·동국대, 연희림상은 불광사와 능인선원, 예쁜상은 청룡사와 개화산 미타사 및 옥수동 미타사가 각각 수상했다. 불교문화체험상은 진각종과 대한불교연화회, 행진상에는 보문종과 청소년협회가 수상했다.



평화위한 국회 종교의원모임 창립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각 종교를 믿는 여야 의원들이 아우르는 '평화를 위한 국회 종교의원 모임'이 창립했다. 이날 초대회장은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이기도 한 김영진 의원(국민회의, 전남 강진 완도도)이 선출됐다. 이 자리에는 정각회장 서석제 의원(국민회의)과 천주교신부회장 김현욱 의원(자민련), 원불교도인 김경수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36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정보문화관 상록원 준공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5월27일 서울캠퍼스에서 정보문화관 상록원 준공식을 가졌다. 정보문화관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종합민원실과 역경원 및 정보산업대학이 들어서고, 상록원은 지상3층 규모의 식당전용 건물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녹원스님, 도원스님, 송석구 총장, 서든카 이사장, 황명수 총동창회 회장, 류시열 제임은평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승가원 소쩍새마을 후원 바자회

승가원(대표이사 현성)은 소쩍새마을 후원 및 종합복지재단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5월26~27일 이틀간 동국대학교 만해공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품의 의류와 생활도자기, 불교용품, 음식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 자비콜택시 창립

친절 서비스로 '거리포교사' 다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안전운전이 또다른 불사임을 안다' '한국 최고의 택시를 만든다' '친절과 미소가 서비스의 전부임을 안다' '손님을 일어서서 합장하며 맞는다'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각회장은 법회를 통해 "지난 11년동안 펼쳐온 봉사활동을 또다시 앞으로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을, 밖으로는 증생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nia.com)



부산불교운전자사회는 2일 코모도호텔에서 자비콜택시(회장 고영호)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정각 미용사 주지,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자비콜택시 회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불교언론인회 창립 1돌 기념식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5월27일 불교방송 2층 한국불교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신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간 성과는 적었지만 지방조직 등 토대를 다지고 있다"며 "불교의회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언론인회 고문 김중서 박사(前 교육개혁위원장)는 "불교언론인들은 국민을 계도하는 교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박사는 저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1백권을 법공양 했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성낙승 BBS 사장, 김성호 카톨릭언론인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가 6월 10일과 11일 이틀동안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는 이번 관광가이드 연수는 한국 불교문화의 특색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사찰문화와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팔만대장경 강의, 그리고 불교문화 답사와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02)720-7060

금음단불교연 운영회의

전국금음단불교연합회(회장 김운하)는 9일 오후 7시30분 명동에서 제2차 합동법회(5월19일)에서 모인 보시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7월초 합천 해인사에서 실시할 예정인 전국금음단 불

우리 모임에선

자 합동수계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예정이다. (02)398-6464

제주경찰서 범우회 창립

제주경찰서 범우회(회장 양대현, 경무계)가 창립했다. 제주경찰서 범우회는 5월20일 합법정사에서 제주경찰서 경승실장 상하스님과 관료스님을 비롯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수원교도소 지장보살 점안

수원교도소 지장보살 점안식(사진)이 5월20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락성 부장은 성수 태현스님을 비롯한



종교위원 10여명과 이종화 교도소장, 오희환 전국교정불자연합회 회장 등 내외인사 1백여명과 재소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0331)213-8893

불다클럽 아가의집 위문

불다제주중음클럽 백복희 부녀회(회장 고순자)는 5월26일 함덕 아가의집을 방문, 점심공양과 진입로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064)48-0108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Reiki, 靈氣)는 인류의 건강과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귀중한 우주 생명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자원을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레이키법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둠면이라는 고유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단시일내에 집중력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공법에도 없고 오직 레이키법에만 있는 어둠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비법중의 비법입니다. 어려움 동안 기공을 지도해 온 기공사는 내막회중에게 레이키를 전수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피 나는 수련을 해야 집중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나는 경험상 알고 있다. 그래서 레이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면서 두 손을 내저었다. 손에서 자유롭게 집중 에너지가 흐르게 되려면 얼마나 힘든 수련이 필요한 것인지 잘 아는 나의 상식이 옳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한 번 레이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평범한 가정 주부 마저도 그 자리에서 집중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는 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레이키법은 모든 기공인이 노심조사해 추구하던 바로 그 기적의 속성식 기공법임이 틀림없다. 모든 수련자가 레이키를 전수받아 자신들의 수련력을 촉진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레이키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지식 수준에 달려 있지 않고 명상을 할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어려움 동안 기공을 수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가 어둠면에 해당하는 동안 기공해 눈을 감고 있어주시기만 합니다. 레이키 에너지는 레이키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순간 체험, 비전도 보이는 경험, 전생 경험, 메시지(계시)를 받는 경험 같은 신비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눈이 열린다. 투시 능력이 생긴다. 직관 능력이 생겨난다 등의 심령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레이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작곡. 나는 젊과 정신세계 분야 번역 저술가로서 번역서 1백권 이상 저서 10권 이상을 낸 저술가이고 기공 연구자입니다. 환경과 의의 문제가 심화되어 갈수록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공이 필요한 것임을 절감하고 바쁜 현대인이 적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속성식 기공법을 찾아 헤메던 끝에 1990년에 돌아와 갑자기 세계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레이키와 만났습니다. 도합 9-10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계의 레이키 지도자,

영국계의 레이키 지도자, 오스트리아계의 레이키 지도자에서 일본 교육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개발된 현대식 레이키법, 1985년에 미국의 레이키 마스터 윌리엄 렌드가 새로이 개발한 카루나 레이키(일부 절환의 치료와 영성의 개발에 더욱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법을 두루 전수받아 세계의 '레이키 기술'을 꼭 습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우스에 레이키 마스터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를 겸하고 다체종제 레이키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는 미국 유럽 등의 여러나라에서 효과성이 높음이 이미 증명되어 있으며 아주 대중적인 힐링(요법의 기법으로서 널리 일반인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래로는 미국 종합 병원의 간호사들이 많이 레이키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이키법의 전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제1단계 : 2일 이 단계는 레이키를 처음으로 몸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6월 16-17일, 23-24일, 6월30-7월1일 ▶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이 단계는 레이키의 파워를 훨씬 높이고 생활의 각 방면에 레이키를 다체종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6월19일-20일, 6월26일-27일, 7월3-4일 ▶ 전문임상응용단계: 도합4일 정도 이 단계는 전문적 레이키 요법가가 되려는 분을 위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2-3일 전에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하며, 시간 사정이 맞지 않는 분에게는 개별지도도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문의: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던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비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락처 02-942-1127~8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